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0.25(금) ~ 2024.10.31(목)

제공일시 2024 11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0.25(금) ~ 2024.10.31(목)

제공일시 2024 11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내년부터 최첨단 기술 對中 투자 통제... 미중 패권경쟁 다시 불붙나

- 미국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함에 따라 최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여짐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됨
- 이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함. 또, 중국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우려 국가'로 규정함

[\(에너지경제 2024.10.29\)](#)

2. EU, 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폭탄'... 中 "계속 협상"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기존 관세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 관세는 30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됨. 관세율은 EU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적용됨. 상하이자동차(SAIC)가 가장 높은 45.3%(기존 관세 포함)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지리자동차와 비야디(BYD)는 각각 28.8%, 27%의 관세를 내야 함. 다만, 양측은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입장임
- 중국 상무부는 EU의 이번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반발하면서도 "현재 양측 협상팀은 새로운 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아주경제 2024.10.30\)](#)

3. 독일, 발전량 급증 태양광 수요 초과... 보조금 삭감 추진

-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함
- 블룸버그가 입수한 독일 정부의 보조금 축소 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로 보조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짐
- 블룸버그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현재는 100킬로와트(kW) 용량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의 보조금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기준은 2026년에는 90킬로와트 이상으로 낮아짐. 2027년에는 75킬로와트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는 25킬로와트로 낮아질 예정임

[\(ESG경제 2024.10.29\)](#)

국내 정책

1. 환경부,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 롯데글로벌로지스 등과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가 화물차 등 상용차 중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 속도를 높임
- 이를 위해 수소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을 강화함
- 환경부는 30일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을 위해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어리퀴드에너지, 롯데에스케이에너지,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수소차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됨

[\(S-저널 2024.10.30\)](#)

2. 충주에서 암모니아 기반 수소 만든다... 중기부 "세계 최초"

- 충북 그린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수소 전기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실증사업장이 들어섬
- 이번에 준공한 실증사업장은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 1587.64㎡(약 430평) 규모에 정부 지원 외 지방비와 민자금 등 총 248억 원을 투입함
-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해 모듈형(수소 생산 플랜트)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를 생산하고 정제하는 시스템 실증설비를 구축함
- 실증사업장이 준공되면서 여기서 생산된 수소를 기존 연료전지나 수소차 충전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스1 2024.10.24\)](#)

3. 한-노르웨이, 수소·AI·바이오·극지과학 분야 연구 예산 합의

- 한국과 노르웨이가 재생에너지(수소), AI, 바이오, 극지 과학 등 4개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합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노르웨이 교육연구부는 2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노르웨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자금 지원기관(한국연구재단-노르웨이 연구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양국은 수소 및 수소 파생물의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연구 등으로 공동연구 분야를 구체화함. 노르웨이의 수소 생산 기술과 한국의 고효율 수전해 기술 및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하는 것임
- AI 분야에서는 석유·가스, 에너지, 해양 및 수산업 등 노르웨이의 강점 기술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AI 기술로 더 발전시키기로 함

[\(뉴스1 2024.10.29\)](#)

글로벌 기업

1. “폭스바겐 독일 공장 최소 3곳 폐쇄 검토”

-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함
- 회사는 또 폐쇄 대상 공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도 생산량을 줄이고, 일부 부서의 경우 외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함

[\(서울경제 2024.10.28\)](#)

2. 리토스 에너지, 美 리튬 DLE 특허 획득

- 미국 배터리 제조 기업 리토스 에너지(LiTHOS Energy)가 미국에서 직접리튬추출(DLE) 관련 특허를 확보함
- 이번 특허는 리튬 추출·정제 전 과정에서 총 다섯 단계를 보호하며 리토스의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리토스는 이번 특허로 라이선싱·파트너십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임

[\(더구루 2024.10.29\)](#)

3. 中 에스볼트에너지, 유럽 시장 철수… 한국 배터리 3사 반사이익

-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에스볼트에너지(SVOLT Energy)가 독일 내 배터리 공장 2곳의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 전기차 캐즘과 유럽 관세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임
- 29일 CBN 등 외신에 따르면, 에스볼트에너지는 내년 1월 31일부로 유럽 법인과 독일 자회사를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함. 또, 독일에서 추진 중이던 두 곳의 배터리 공장의 건설도 중단하기로 함

[\(디지털타임스 2024.10.29\)](#)

4. 배터리 ‘캐즘’인데 CATL, 1.2조원 대규모 증설 투자

- 중국 2차전지 1위 기업인 CATL(닝더스다이, 宁德时代)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착공함
- CATL의 자회사인 푸닝스다이(福鼎時代)가 푸젠성 닝더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닝더시 공업정보화부국이 25일 발표함
- 착공된 공장은 푸닝스다이의 5번째 공장임. 5공장에는 64억7000만위안(약 1조2400억원)이 투자됨
- 공장은 글로벌 최정상급 배터리 라인 및 스마트 제조설비를 갖추게 됨

[\(뉴스핌 2024.10.25\)](#)

국내 기업

1. 현대차,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 SK E&S, GS E&R, 엔라이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PPA)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
- 현대차는 이번 PPA를 통해 향후 20년간 현대건설, SK E&S, GS E&R, 엔라이트으로부터 국내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연간 610GWh(기가와트시)를 공급받음
- 이는 84kWh의 배터리가 장착된 아이오닉5를 700만회 이상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임
- 현대차는 이번 계약으로 장기간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약 5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내일신문 2024.10.30\)](#)

2. 포스코그룹, 印 JSW그룹과 철강·이차전지 소재 협력

- 포스코그룹이 14억 인구를 지닌 신흥 시장 인도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함. 포스코그룹은 지난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1위 철강사 JSW그룹과 철강·이차전지소재·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
- 포스코그룹과 JSW그룹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인도에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차전지소재, 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그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지디넷코리아 2024.10.29\)](#)

3. LG화학, 북미 전기차 업체에 방열 접착제 공급 시작

- LG화학은 북미 전기차 업체향으로 방열 접착제 공급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
- LG화학은 180개 이상의 방열 접착제 특허를 보유, 기술장벽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
- LG화학은 2030년까지 자동차용 접착제 사업 규모를 수천억 단위로 육성할 계획임

[\(헤럴드경제 2024.10.30\)](#)

4. '씨에스윈드, 美 해상풍력단지에 2320억 규모 해상풍력타워 공급

- 글로벌 풍력타워 및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기업 씨에스윈드가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설치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 해상풍력타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함
- 이번 PO(Purchase Order) 계약은 2330억원 규모로, 씨에스윈드의 포르투갈 법인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임
- 해당 86개의 타워들은 2026년까지 약 1.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에 설치될 계획임

[\(조선일보 2024.10.2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0.25(금) ~ 2024.10.31(목)

제공일시 2024 11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 BESS 용량 4년간 20GW 늘어... 원전 20기 수준

- 간헐적인 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의 속도도 높이고 있음. 배터리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뿐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따른 정전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 2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를 인용하며 2020년 이후 미국 전력망에 20GW(기가와트)가 넘는 배터리 용량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20기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용량이 불과 4년 만에 전력망에 추가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5GW가 설치됐음. EIA는 2025년까지 현재 용량이 두 배인 4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기업에 기회가 생겼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같은 주요 시장에 조기에 상당한 투자를 한 기업이 큰 혜택을 보고 있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배터리 저장 능력 확대에서 선두에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7.3GW, 텍사스에 3.2GW의 배터리 저장 용량이 설치됐음

- 지난 9월 23일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Engie)는 미국에서 설치한 BESS 설치 용량이 1.8GW를 넘었으며, 이 중 1GW는 2024년 1월 이후 추가됐다고 밝혔음. 엔지는 미국 전역에서 24개 BES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미국 내 최대 BESS 운영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 특히, 텍사스의 전력망 시스템을 지원하는 독립 배터리 운영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함

- 글로벌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에 따르면, 2월 중순에 아레본 에너지(Arevon Energy)와 블랙스톤(Blackstone)은 캘리포니아에서 200메가와트(MW) 규모의 콘도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위해 3억5000만달러(약 4900억원)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음. 같은 달 말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트라타 클린 에너지(Strata Clean Energy)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255MW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위해 5억5900만달러(약 78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음

- 미국 BESS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정책 지원의 혜택도 받고 있음. IRA는 독립형 BESS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최근 몇 년간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도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배터리가 재생에너지의 불규칙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텍사스는 전력망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2021년 2월의 겨울 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대표적임. 캘리포니아의 경우,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기에 대형 배터리 덕분에 지역 전역의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력망 관리기구인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국(CAISO)은 올여름 여러 차례 폭염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에게 절전을 요청하지 않았음. 이는 4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순환 정전을 단기적으로 시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임

- 비영리단체인 북미전력안정성위원회(NAERC)의 존 모우라 이사는 “기존 전력망 시스템은 BESS를 고려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적응 과정에 있지만, BESS는 전력 신뢰성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음. 그는 “BESS는 전기를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한다”며 새로운 전력 공급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팩트온 2024.10.28\)](#)